

NO.1

행복은 <sup>a</sup>탁월성이다. 이러한 행복은 목적지향성, 능동성, 이타성, 지속성을 조건으로 한다. 행복을 성취하는 사람은 재능적이든 도덕적이든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sup>b</sup>행복 자체가 한 개인이 탁월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끊임 없는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탁월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이 순환된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이며 자신의 탁월함으로 주변까지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데 이러한 이타적인 행위가 행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행복은 혼자서는 지속하기 쉽지 않고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훨씬 좋아졌네.

<sup>c</sup>꿀찌주자는 행복을 성취한 사람이다. 꿀찌주자가 마라톤에서 꿀찌그룹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달리기를 완주한 행위는 행복의 능동적, 목적지향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꿀찌주자는 자신의 초라한 성적과는 상관 없이 자기 주체적으로 마라톤이라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마라톤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능동적으로 성취해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sup>만</sup>의 미를 부여하며 자기목적성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꿀찌주자의 행위는 관객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며 행복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에서 꿀찌주자는 행복을 성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okay.

제시문 3의 페렐만은 양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페렐만이 세계적인 수학적 난제를 풀어낸 <sup>b</sup>행위는 행복의 탁월성과 능동성, 목적지향성의 관점에서 행복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재능적 탁월함으로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했던 '푸앵 카레 추측'을 풀었다. 그로 인해 자신의 탁월성을 입증해내고 타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sup>카레</sup>> 그는 행복을 성취할 수 있었다. <sup>e</sup>또한 이렇게 타인들에게 기쁨을 준 행위가 비록 의도적인 것은

[a] 행복을 설명할 때 '탁월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 무엇이든 '잘' 하면 그게 곧 행복인가? '잘'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인지가 더 중요하다. 가능적으로 우수하거나, 윤리적으로 고결한 행동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아무 행동이나 단지 '잘(탁월하게)' 한다고 그게 곧 행복으로 가는 건 아니지?

[b] 주어-서술어 호응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네. 행복이 행복 스스로를 불러온다는 정도로 썼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행복이 스스로 목적을 성취하는 주체라고 말하니까, 어색하네.

[c] "위의 관점에서" 정도의 연결부는 들어가야 안전해. 무엇에 기반하여 이러한 결론이 추론되는지에 대해 확실한 표지를 주는 게 좋다는 거야.

행위가 사랑이야?  
주요 관용 개사는 긴 해답이야  
전혀 비극적 않은 심어야.

5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바라 동인이 애정함으로 보이며,  
부부 감정발 발도 X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행복의 이타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페렐만이 자기 스스로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학의 난제를 해결한 행위는 행복의 관점에서 능동적, 목적지향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주변의 상황이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가 난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은 머물러있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직접 활동을 통해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반면 페렐만이 주변의 상황이나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복의 지속성 관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변과 타인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을 특징으로 하는데, 페렐만은 클레이 수학 연구소의 상금이나 필즈 메달과 같은 모든 타인의 인정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타성을 자처하며 행복의 지속적인 성취는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4의 허삼관은 행복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다. 허삼관의 매월 행위는 궁핍한 경제적인 상황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동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또한 이러한 매월행위가 가족을 기쁘게 하며 일부 이타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 역시 매월행위에 타월성이 들어가진 않았다는 점에서 행복을 성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매월행위 자체가 타월성의 조건이 되는 도덕적이거나 재능적인 역할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행복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허삼관은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한" 란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지?  
 "사나 또한 사나"는  
 무슨 뜻이 아니지?

f '클레이' 인에  
 행복에 대한 상황에 있어  
 중요한가? No.  
 (이러 제시문 4)은  
 '타월성'을 강조하고 있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다. 차라리 욕망을 쫓기  
 위해 쓰는 게 낫다.

h. 쿠체성이 행복의  
 연구인가?

인간과 그것에만  
 /문관에서 예  
 강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쿠체성은 (1)에서  
 강조된 맥락이 아냐.

i. 첫 문관에서  
 각 문관에만 쿠체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

대중은 타인을 위해 타인  
 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행위이거나,  
 행복을 위한 조건이 부합함!